

전라감영 핵심건물 선화당 ‘윤곽’

기둥 세우고 대들보 올리는 등 목재조립 마쳐 시, 재창조 복원공사 40% 공정률 진행 순조

전주 구도심 1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의 핵심공간이자 전주시민의 자긍심이 될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핵심건물인 선화당과 관공각의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등 목재 조립을 마치면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는 총 8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9월까지 추진되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4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라감영은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행정기구로, 전라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은 전라감사가 집무를 보던 정청(政廳)이다. 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복원대상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으로 현재 중심건물인 선화당과 관공각의 목재 조립을 완료하고 내아, 연신당, 내삼문 등 기타 건물들의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복원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올 연말이면 전라감영의 대략적인 건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원될 전라감영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최첨단 ICT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라감영이 박제된 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콘텐츠로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와 함께 복원 건물의 실시설계 안에 대해 실무위원회 및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꾸준한 논의를 거쳐 왔다. 또, 구도청사 건물 철거 이후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의 흔적과 각종 고지도 및 문헌의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작업에 주력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히 외관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이 되고 전주의 위대한 번영을 일컫는 핵심 공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단순한 건축물 복원이 아닌 전라감영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 전주만의 자존감 회복을 통해 위대한 전주, 나아가 전북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고속도로 거북이 운행 추석 연휴인 지난 25일 항공에서 바라본 전주IC 인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이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협회 제공>

전주 용머리 여의주마을 ‘예술인 마을’ 서학동예술촌에 공공 와이파이가?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 시, 주민설명회 열어

전주시가 노후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전주 용머리 여의주마을을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최근 전주 바울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향후 추진될 사업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주민 중심으로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업설명과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여의주마을은 완산동 15통, 17통, 효자1동 2통 일부에 위치해 있으며 30년 이상의 노후건물의 비중이 마을 전체 가구의 80% 넘게 차지하고 있다. 또 고령인구와 독거노인세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 등이 높아 재생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 시급한 지역이다. 또, 폭 4M미만 도로가 54%에 달하고 공·폐가 19%, 도시가스 보급률은 69%에 그치는 등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이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75억원을 들여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폐·공가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의 관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디자인하고 완성해 나갈 때 가능하다”며 “2021년 뒤의 이곳 여의주마을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담은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관광공사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 선정 내달 문체부 실시 통해 최종 장소 확정 올 연말까지 구축

예술인들이 모여 살면서 제2의 한옥마을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시 서학동예술촌 일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가 구축된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의 '2018년도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와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에 국비 720만원과 도비 660만원, 시비 1620만원, 통신사업자 부담금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투입,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고 밝혔다. 세부 구축장소는 오는 10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실시를 통해 서학동에 술마을 테마거리와 행복플러스거리, 창작예술인거리 등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후 12월 중순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통할 방침이다.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면 이곳 인근 주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전주 한옥마을에 이어 전주천 너머 서학동예술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덕진공원 일대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WiF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Beacon)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앱을 개발하는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 지난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존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되면 서학동예술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학동예술마을의 매력 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더욱 많이 알려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내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지급 수급여부 확인 소득·재산 등 사전절차 진행

전주시는 내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 10월 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부터는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가구원수 증위소득의 43%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입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거구의 경우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이지만 10월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0월안에 신청하라고 권고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및 수시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임제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동자생단체 및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소년원 최초 드론축구장 설치

전주소년원은 최근 전주시청, ㈜드론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00만원 상당 기증 받아 강당에 '드론축구경기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소년원은 지난 7월 16일 ㈜원탑드론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시대 취입 유망 직종인 '드론교실'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드론 축구경기장 설치를 계기로 금년 10월 30일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공군참모총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에 학생 7명을 출전시켜 소년원 학생들이 에게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드론국가자격증반을 병행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추석연휴 도내 해상사고 5건 발생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

추석 명절 연휴기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북도내 해상에서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기간 동안 전북도 해상에서 총 4건의 선박사고와 1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박 사고는 모두 엔진 고장에 의한 표류사고로 어선이 1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발생했는데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끝내 팀 내 모두 구조를 완료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도 1건 발생했는데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안벽 위에 방치된 폐유통이 바다에 떨어지면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수습에 반납하기 위해 쌓아둔 폐유통 등이 바다로 쏟아진 것을 보고 소유자 및 바다에 떨



어진 경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목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연휴기간 동안 바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고 특히 수상레저사고의 경우 주요 활동 해역에 구조선박을 상시 배치하는 등 여러 대비책 덕분에 인명피해 없는 효율적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20건으로 어선이 5건,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13건, 테트포드 추락 2건, 해양오염 1건 등 것으로 보고 소유자 및 바다에 떨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적발시 벌금·구금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주시, 28일부터 시행

오는 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전거를 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관련 법규는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모 착용의무를 기존 어린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한 것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는 단순한 레저 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이라며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만12세 이하까지

전주시, 기존 59개월서 확대

영유아와 어르신에 이어 초등학교생들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59개월에서 올해부터는 생후6개월~만12세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무료접종대상자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출생한 영유아 및 어린이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전주시역 의료기관 중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위탁기관은 101개소다. 접종방법은 6개월~만9세 미만의 영유아와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대상과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접종했던 대상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만9세 이상 어린이와 만9세 미만 대상자중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했을 경우에는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차례 접종을 받으면 된다. 단,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생애에 위협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사람 △인플루엔자 백신의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갈방-비레 증후군(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급성 미비성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증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피해야 한다. 과거접종력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회원가입 후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플루엔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 후 2주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 평균 6개월 동안 유지되는 만큼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좋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라돈측정기 시민대여 서비스 시행

올해 상반기 국내 한 침대업체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시중에 유통된 매트리스 29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지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개인이 이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

단으로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대가가 수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라돈측정기 15대를 구입해 시청 환경위생과와 완산·덕진구청 생태공원복지과에 각각 5대씩을 배치,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대여비용은 1,000원으로 1박 2일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환경위생과(063-281-2328) 등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